별 보며 잠 드는 '나만의 별장' 해남 땅끝 오토 캠핑장

4계절 관광 휴양지로 뜬다

가을맞이 요금 인하… 이용객 큰 호응

'가을하늘 가득 담은 쪽빛 바다, 가을밤 풀벌레 소리, 총총히 박힌 별들…'

올 여름 연일 매진 행진을 기록한 해남 송호리 해수욕장 내 오토 캠핑장이 가을맞이 요금 인하로 또 한번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전남지역 해수욕장들이 여름철 반짝 특수 이후 문을 닫는 상황에서 이같은 가을 특수는 4계절 휴양지 조성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해남군은 "7~8월 성수기때 평일 8만원, 휴일 10만원씩 받아오던 땅끝 4인용 오토캠핑카(1대당 3천만원)의 이용료를 각각 3만원과 4만원으로 인하한 이후 예약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4명이 함께 숙박할 수 있는 캠핑카는 2층 침대 1개, 2인 침대 1개, 화장실, 샤워시설, 조리시설, 위성TV, 냉난방 시설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설치돼 올 여름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조리 시설은 집안의 부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완벽해 양념류와 간단한 먹을거리만 준비하면 대부분의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도 있다.

또 캠핑카 1대마다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야외 원형 테이블을 배치하는 등 개인 공간을 최대한 배려한 점도 이용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토 캠핑장의 또 다른 인기 비결은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송호해수욕장이다.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송호해수욕장은 수백 년 된 해송(海松)이 제방을 따라 1㎞가량 이어진 곳으로, 수심이 낮고 백사장이 깨끗해 전남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꼽힌다. 이와함께 승용차로 5분 거리엔 '국토 순례의 메카'인 땅끝 전망대 등 다양한 관광자원도 분포돼 있다.

지난달 27일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캠핑카에서 보낸 김진호(43·광주시 서구)씨는 "시원한 가을 바람과 풀벌레 소리,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김성홍 해남군 관광개발 담당은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캐러밴에서 쉬면서 인근 땅끝 전망대와 송호리 해수욕장, 해양자연사박물관 등을 둘러볼 수 있어 인기를 끄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의 (061-530-5544)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광주 광산구 장애인 은륜 대축제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2인용 자전거를 타고 광산구를 누비는 '제 1회 장애인 은륜 대축제'가 40여 명의 시각장애인을 비롯해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개최됐다. 이날 자전거 투어는 광산구 공용주차장을 출발해 동부파출소, 평동산단, 영광통 사거리에 이르는 11.2㎞에 걸쳐 펼쳐졌다. 〈광산구 제공〉

가격 폭락 나주배 대대적 판촉 나선다

나주시, 전국 116개 이마트서 10만 상자 판매 추진

나주시가 배 소비 촉진을 위해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전개한다.

나주시는 과잉 생산과 소비 둔화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 재배 농가를 위해 농협,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소비 확대 운동에 나섰다.

나주시는 2일부터 1주일간 전국 116개 이마트에서 5㎏들이와 소포장 등 배 10만 상자를 팔 계획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배는 추석 이후 수확해 당도가 높은 데다 적당한 숙기(熟期) 등으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

나주시는 또 배가 '명절에만 먹는 과일'이라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 '사시사철 먹는 과일'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식품학적 영양가치와 효능도 강조하기로 했다.

전국 재배 면적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나주지역은 올해 작황 호조에 따른 과잉 생산에다 이른 추석 명절로 소비가 위축돼 배 가격이 예년의 절반 이하로 폭락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당도가 높고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데도 과잉 생산에 소비 부진이 겹쳐 농가들의 애로가 크다"며 "이번 특판 기간을 통해 도시지역 소비자들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지역은 2천800여농가가 2천900여ha를 재배해 연간 1천억원대의 소득을 올려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강진농협 미곡처리장 우수농산물 업체 지정

강진농협(조합장 김근진) 미곡종합처리장이 '우수농산물(GAP) 관리업체'로 지정됐다.

강진농협은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의 49개 항목에 걸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난달 26일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우수농산물 관리시설'은 벼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곰팡이·대장균 등 2차 오염원을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최첨단 위생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지정된다.

강진농협이 생산하는 '프리미엄 호평쌀'은 2006·2007년 2년 연속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쌀'에 선정되는 등 밥맛과 품질이 뛰어난 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우수농산물 관리업체' 지정으로 강진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RPC 경영평가 및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영광·함평 불갑산 권역 산촌 관광지 개발

지역혁신사업 선정… 공동 브랜드화 추진

함평군과 영광군이 행정안전부의 지역혁신협의회 공모 사업에 선정돼 6천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양 지역이 공동으로 제출한 '함평·영광의 불갑산권역 산촌관광 활성화사업'은 최근 전국 37개 우수과제에 최종 채택됐다.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함평·영광 지역은 불갑산을 테마로 한 토속상품의 공동브랜드화와 상호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영광군과 함평군은 지난 2005년부터 꽃무릇을 주제로 상호간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함평군 장정진 담당은 "함평·영광 공동협의회가 주축이 돼 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의 모델 제시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완도에선 지금…

청산면 모도에 복지회관·진료소 개소

완도 청산면 모도 모동리에 복지회관 및 진료소가 세워졌다. 완도군은 지난달 29일 김종식 완도군수, 정기만 지역개발과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사진〉

보건진료소는 사업비 1억6천500만원을 들여 1층 슬라브 건물로 신축했으며, 복지회관은 1억500만원을 들여 마을 주민들이 애·경사 행사 등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청산면 모도는 면사무소가 위치한 청산도 도청리에서 직선거리로 11㎞ 떨어진 608.5ha 면적의 오지 섬으로 모동리와 모서리 등 2개 마을이 있으며 107가구 116명이 거주하고 있다.

소안면 여성단체협 회장 고순희씨 취임

고순희(51)완도군 소안면 여성단체협의회 초대 회장 취임식이 지난달 30일 소안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식 완도군수, 이부남 전남도의원, 김진침 군의원, 각 읍면별 여성단체 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일제시대 활발한 독립운동을 벌인 곳으로 널리 알려진 소안면은 그동안 여성단체협의회가 없었으나 이번에 지역 여성단체가 처음 발족됐다.

고순희 회장은 "앞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앞장서는 등 더불어 사는 이웃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화순 도곡농협 '품질경영 대상'

화순 도곡농협(조합장 서병연·사진)이 농산물 판매사업과 유통혁신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한 공로로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10월의 '농산물품질경영대상' 수상조합으로 선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산지유통전문조직인 도곡농협은 2006년 6월 산지유통센터(APC)를 개장해 상품성이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ISO9001인증, 이력추적 및 GAP인증을 취득하는 등 판로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대일 수출품목인 파프리카와 방울토마토·완숙토마토를 공동선별·공동출하함으로써 우수 농산물 생산의 기틀을 마련했고, 자재 육묘 등을 공동구매해 9월 말 현재 84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다.

서병연 조합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첫번째 과제가 안전성과 품질"이라며 "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해 선진 농업기술 교육과 품질관리 활동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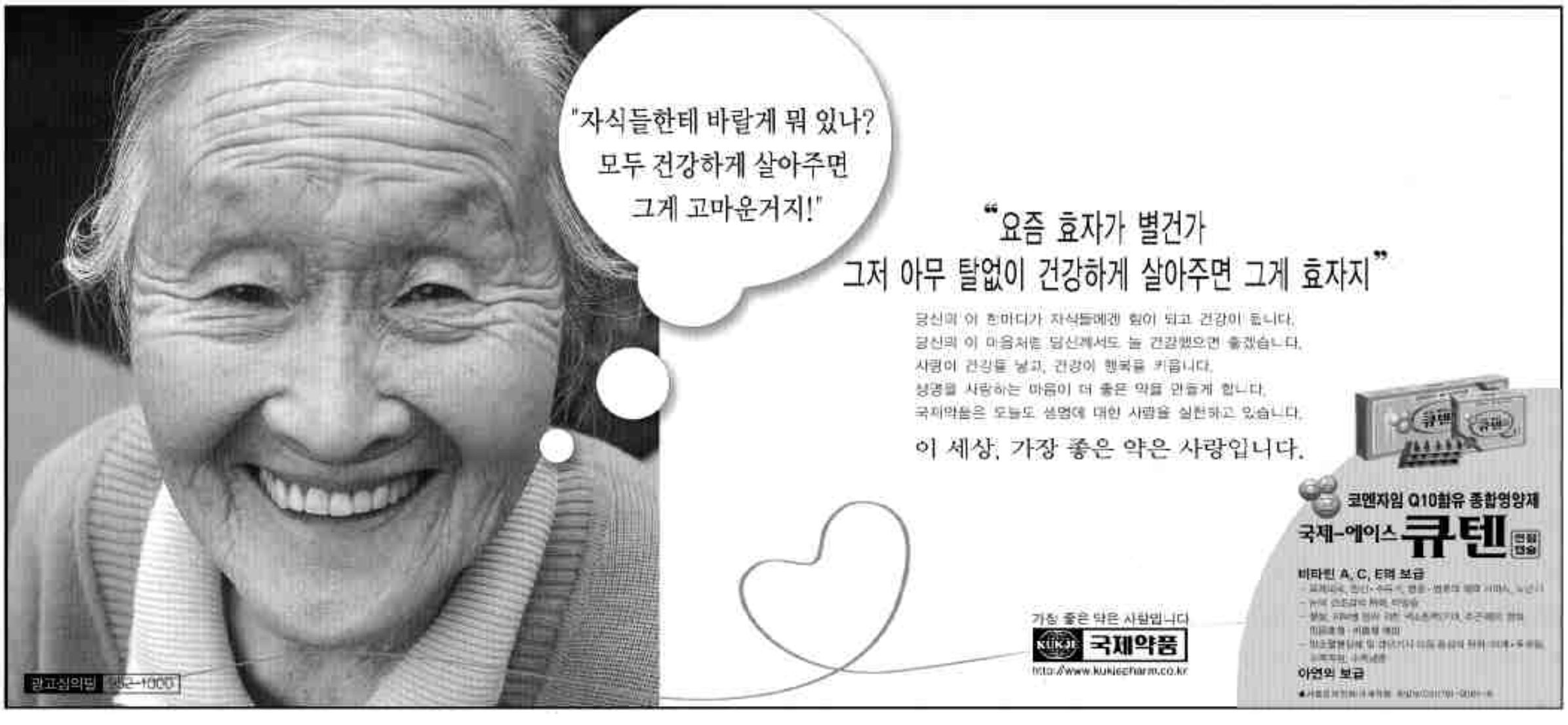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흥에 실내수영장 郡, 6레인 규모 조성

장흥군에 6레인 규모의 실내 수영장이 건립된다.

장흥군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돼 실내 수영장을 조성한다. 장흥군은 장흥읍 건산리 일원에 70억원을 들여 면적 3천202㎡(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수영장을 201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한다.

수영장은 길이 25m의 6레인 풀을 비롯해 헬스장, 다목적실, 어린이 도서관, 가족 휴게실 등을 갖춘 초현대식 스포츠센터로 세워진다.

군은 실내 수영장이 완공되면 각종 전국 단위 체육대회와 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